Tel. 010-8082-0912 Mail. ruem8654@gmail.com

FIRST 100
청년 첫 직장 100일 안심동행제

취업 성공에서, 좋은 첫 경력의 시작으로



정민혁 | 고용·노동·일자리·산업안전 정책

Contents



01 현황 및 문제점 — 어렵게 얻은 첫 직장, 청년들은 왜 떠날까요?

02 정책의 빈틈 — 현재 취업 후 첫 100일을 살피고 있는 정책은 부족합니다.

03 FIRST 100 설계 — 입사 7일·30일·100일 단위로 청년에게 다가갑니다.

04 성과 및 기대효과 — 오래 다니는 것을 넘어, 행복하게 다니는 일자리로

01 어렵게 취업했는데, 왜 떠날까요?

취업이라는 문턱을 넘은 뒤에도, 청년들은 또 다른 어려움을 마주칩니다.

취업의 어려움

평균 첫 취업 소요기간

1년 이상 31.3%

1년 미만 68.7%

첫 직장 유지의 어려움

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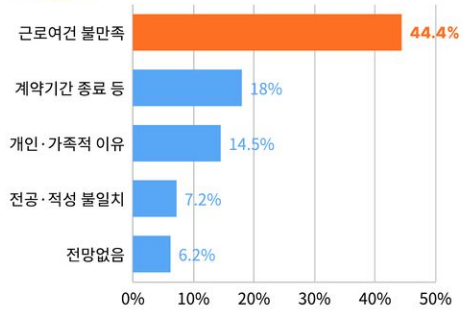
첫 직장을 그만둔 비율 (임금근로자 기준)
그만둔 청년 평균 **근속 1년 2.3개월**

첫 직장을 그만둔 청년 62.7%

계속 다니는 청년 37.3%

좋은 첫 직장의 어려움

첫 일자리를 그만둔 주요 사유 1위
근로여건 불만족



평균 첫 취업 **11.2개월** | 첫 직장 그만둠 **62.7%** | 근로여건 불만족 **44.4%**

첫 취업이 어려운 만큼, 좋은 첫 직장을 만나는 것도 어렵습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02 취업한 다음 날, 정책의 빈틈이 시작됩니다

현재 청년고용정책은 취업 전과 장기근속 지원에 비해, 막상 입사 직후를 살피는 장치가 부족합니다.



기존 질문 "취업했는가?", "얼마나 오래 근속했는가?"

새로운 질문 **"청년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가?"**

FIRST 100은 바로 그 공백에 주목해, 취업 후 첫 100일을 별도의 지원 구간으로 봅니다.

취업 자체를 성과로 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년이 좋은 첫 경력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까지 살피자는 제안입니다.

03 그래서, FIRST 100

청년의 첫 직장 100일을 정책이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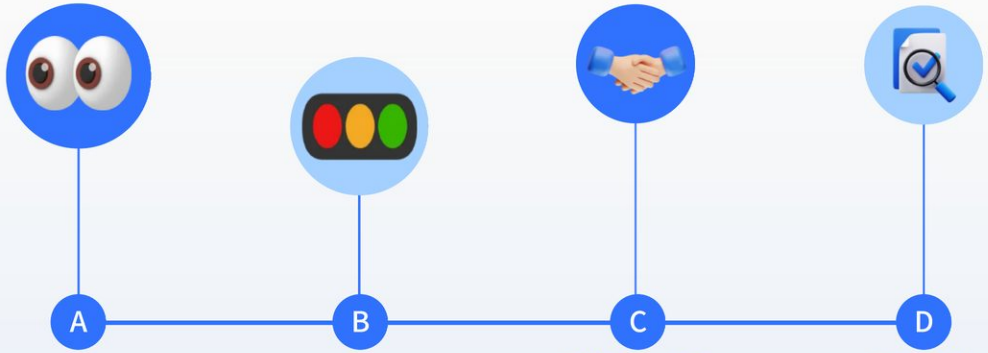
정책 목적

정착 괜찮은 직장에서는 **잘 적응**하도록 지원

보호 문제가 있는 직장에서는 **혼자 견디지 않도록** 연결

전환 근속기간뿐만 아니라 **근속의 질까지** 측정

운영 프로세스



A — DAY 7
내 근로조건 한눈에
근로계약 핵심사항 확인
'내 근로조건 카드' 제공

B — DAY 30
3분 첫직장 안심체크
노동권·산업안전·직장적응 점검
Green·Yellow·RED 맞춤안내

C — 위험신호 발견!
안심브리지(Safety Bridge)
필요한 전문서비스로
즉시 연결

D — DAY 100
100일 리포트
초기 직장생활 종합점검
'첫 직장 100일 리포트' 제공

별도 앱 개발보다 고용24 등 기존 채널을 활용해 자율 참여형으로 운영

입사 후 7일, 30일, 100일에 걸쳐 청년의 근로조건과 직장적응 상태를 점검하고, 위험신호는 전문 서비스로 연결합니다.

04 위험신호를 발견했다면, 혼자 찾지 않도록

문제를 발견하고도 청년에게 다시 해결기관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RED 신호가 확인되더라도 회사에 바로 알리지 않습니다. 🔒
어떤 도움을 받을지는 청년이 먼저 선택합니다.

05 100일을 '버틴 것'만으로 성공일까요?



청년 A

100일 근속

❌ 근로계약 불이행

❌ 임금 문제

❌ 상습 초과근무

❌ 안전관리 미흡

두 사람 모두 같은
"100일 근속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청년 B

100일 근속

✅ 근로계약 준수

✅ 임금 정상 지급

✅ 적정 근로시간

✅ 안전한 근무환경

새로운 성과지표 도입

Q-Retention = (양질의 근속률)

$$\frac{\text{100일까지 근속하며 최소 근로기준을 충족한 청년}}{\text{FIRST 100 참여 청년 전체}}$$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지켜지는 환경에서 일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06 FIRST 100이 바꾸는 것

청년·기업·정부 모두에게 남는 데이터와 지원체계를 만듭니다.



청년

문제를 더 일찍 발견

근로조건과 노동권을 이해하고
문제가 커지기 전에 대응

좋은 직장 → 정착
어려운 직장 → 안전이직



기업

더 나은 근무환경

익명화된 데이터를 통해
신입직원이 어려움을 겪는 지점 파악

업무교육 · 근로시간 · 안전관리 개선



정부

더 정교한 청년고용정책

채용인원과 근속기간을 넘어
일자리의 질까지 측정

정책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축적

젊은 날, 청춘을 바쳐 얻은 소중한 첫 일자리. 그 첫걸음까지 평균 11.2개월.

거의 1년을 준비해 얻은 첫 출근이라면,
정책의 관심도 합격 통보 앞에서 끝나서는 안됩니다.

Tel. 010-8082-0912 Mail. ruem8654@gmail.com

취업은 끝이 아니라,
청년의 긴 노동생활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그 첫 100일만큼은, 청년이 혼자 걷지 않도록.

정책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혁 | 고용·노동·일자리·산업안전 정책